

2023년 4월 독일 프라이부르크 선교편지

- 김종현 성공주선교사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역, MK(선교사자녀)사역, 유럽방송사역, 독일현지인협력사역, 성경공부사역



“후회 없이 사역하고 싶습니다”

#1. 후회 없이 사역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1. 남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 꼴...
2.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3. 내 감정을 더 표출하며 살 꼴...
4. 친구들과 좀 더 자주 연락할 꼴...
5. 나 자신이 행복한 일을 더 많이 할 꼴...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후회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1. 단 한 번이라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보았더라면...
2. 나와 가족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 더 봉사하며 살았어도 됐는데
3. 사람들 앞에 좀 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살 꼴
4. 믿음의 동역자들과 좀 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며 살 꼴
5.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며 이 생애도 천국처럼 살 수 있었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후회 없이 주님을 믿고, 후회 없이 사역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2. 후회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 <마태 마가 누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성경공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 같은 이야기라도 그 강조점이 다르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도 전하고 싶은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도 전하고 싶은 내용도 강조하고 싶은 것도 다릅니다.

10주간의 강의를 위해 교재를 만들기 위해 매주 월요일은 하루 종일 교재제작을 위해 온 시간을 다 드렸습니다. 대개 밤 11시 이전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12시를 넘어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몰랐던 게 많았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두 번씩 가르치며 또 수정합니다.

'목사는 성경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에 철저히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현장에 뛰어들고 난 뒤, 솔직히 성경 볼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밀려왔습니다. 신학교 3년의 깊이를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그간 얼마나 잘난 척 해왔는지. 너무나 부족했음에도 그저 부르심 때문에 감당한 시간이었습니다.

<테마로 읽는 성경>이라는 성경교재를 만들며 3년여 동안 구약과 십계명, 산상수훈까지 마치고, 드디어 들어선 신약의 관문에 들어섰습니다. 말씀은 참 깊었고, 참 기뻐했습니다.

과	제목	본문
1과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마 1~5장
2과	마음을 비추는 복음	마 6~12장
3과	천국을 가진 사람들	마 12~18장
4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마 18~28장
5과	세상을 위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막 1~8장
6과	기꺼이 고난도 감내하는 믿음	막 9~16장
7과	만민의 구주로 오신 완전하신 예수님	눅 1~6장
8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눅 7~12장
9과	회개의 열매	눅 13~17장
10과	이방인을 넘어 온 땅에 전해지는 복음	눅 18~24장

#3. 후회 없이 섬기고 싶습니다 - 이삿짐 나르기

'목사님, 짐 정리하다보니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3월과 7월은 유학생들이 이사를 하거나 귀국을 하는 시기입니다. 한 사람이 살 건, 다섯 사람이 살 건,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유학 나올 때 들고 왔던 몇 개의 가방과는 다르게 짐을 싸다 보면 이것저것 다 나오고, 생각했던 것보다 늘 많은 게 이삿짐입니다.

대개 작은 방 하나에서 나오는 짐이긴 하지만, 택시를 불러서 옮기기에 이것저것 많고, 그렇다고 트럭을 빌리기에 애매하고 복잡합니다. 이때야말로 목사님 찬스를 쓸 때입니다. 이삿짐이나 귀국짐을 돕는 일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떠나는 친구들을 위한 나의 축복의 인사이고, 작별인사입니다. 이삿짐을 옮겨놓고 나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짐들 사이에서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매를 맛보게 하소서.
이곳에 사는 동안 복된 일들이 많게 하소서'

#4. 후회 없이 배우고 싶습니다.

- <이 나이에 박사과정 : 스위스 바젤 신학교>

스위스 바젤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3월에 담당 교수님을 만났고, 구체적인 주제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유럽에 선교사로서 파송된 지 12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국가인 유럽에서 선교란 어떤 의미인지, 이곳에 선교사로서 감당하고 지향해야 할 선교적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훌륭한 선배님들의 본이 되는 모델들도 정리하여 전하고, 또 한국인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의 특징과 함께 이 시대의 유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앞에 어떻게 현직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지, 함께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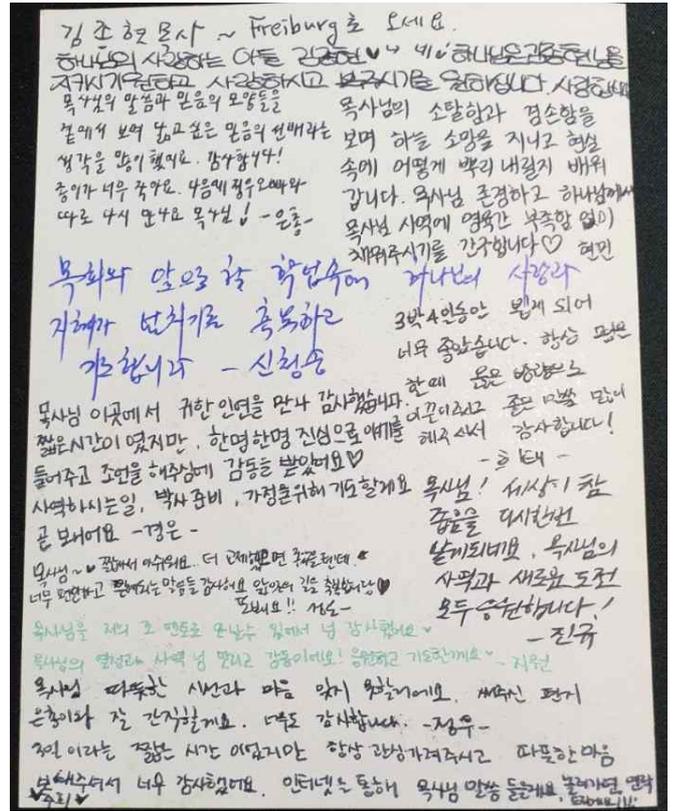
몇 년이 또 걸릴 지 모르지만, 유럽 디아스포라 선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작업이 되리라 믿고 도전해 보려 합니다. 담당 교수님이 대화 도중 가슴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당신의 가슴이 뛰고, 감동이 되는 주제여야 끝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5. 후회 없이 유럽의 디아스포라들을 섬기게 하소서

- 유럽 코스타 <조별 담당목사>로서의 섬김

유럽에 흩어져있는 청년 유학생들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집회인 유럽 코스타(Kosta)에 청년들을 데리고 4시간 여 떨어진 장소에 까지 가서 은혜받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29~31세의 청년들 담당 목사가 되어 3박 4일 동안 섬겼습니다.

교회 밖의 청년들을 만나는 것은 또 다른 설레임이 있습니다. 각자 비슷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지금까지도 그들은 은혜를 나누는 또 하나의 채널이 되었습니다.



#6. 김종현, 설공주 선교사 기도제목

- 변함없는 선교사로서의 기도제목 1번 : 선교사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게 하소서.
- 프라이부르크자유성한인교회 : 새 학기가 되었는데, 새로운 일꾼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독일에 와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 유럽새벽기도방송사역 : 매일 준비하는 데 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방송이 되게 하소서
- 성경공부사역 : 이제 <요한복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부어주소서.
- MK(칸던 선교사자녀학교)사역 : 5월에 칸던 선교사자녀학교 집회를 준비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서로에게 비전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 병원사역 : 부활절에 프라이부르크 대학병원 중환자들과 호스피스병동을 위해 찬양으로 위로하는 사역을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도록 기도부탁합니다.
- 선교사 가족기도 제목 : 올해 여름(8월 2일~9월 7일) 2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에 필요한 재정과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소서.